

예수님 이야기

⑩ 하늘로 올라가심



나 레 이 셴 얼마~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멈추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새롭게 자리 잡을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홀로 서 계셨습니다.

예 수 님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또 저기야? 내가 그렇~게 사람을 낚으라고 했는데도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구만~

나 레 이 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예 수 님 어이~ 뭇 좀 잡았습니까?

제 자 들 야 누구야? / 여기 물고기 없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수군수군)

베 드 로 아, 아니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 수 님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십시오.

나 레 이 셴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고 보 야, 가만 가만!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예수님 3편인가? 아닌가?

.....

나 레 이 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 정말 엄청나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그때~!
요한의 머릿속에 뭔가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요 한 잠깐! 저분! 주, 주님이시다! 주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장작 타는 소리 들린다.)

예 수 님 방금 잡은 생선들 좀 가져 오렴. 입에서 군침이 도는데~?

나 레 이 셴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다들 아침 안 먹었지? 우리, 함께 먹자. 내가 밥 차려줄게.

제자들 (울먹울먹) 네~~

나레이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구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고,
오랜만에 모두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나레이션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양들을 먹여라.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네, 주, 주님, 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느냐?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베드로 주.....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양들을 먹여라.

나레이션 제자들은 예전과 같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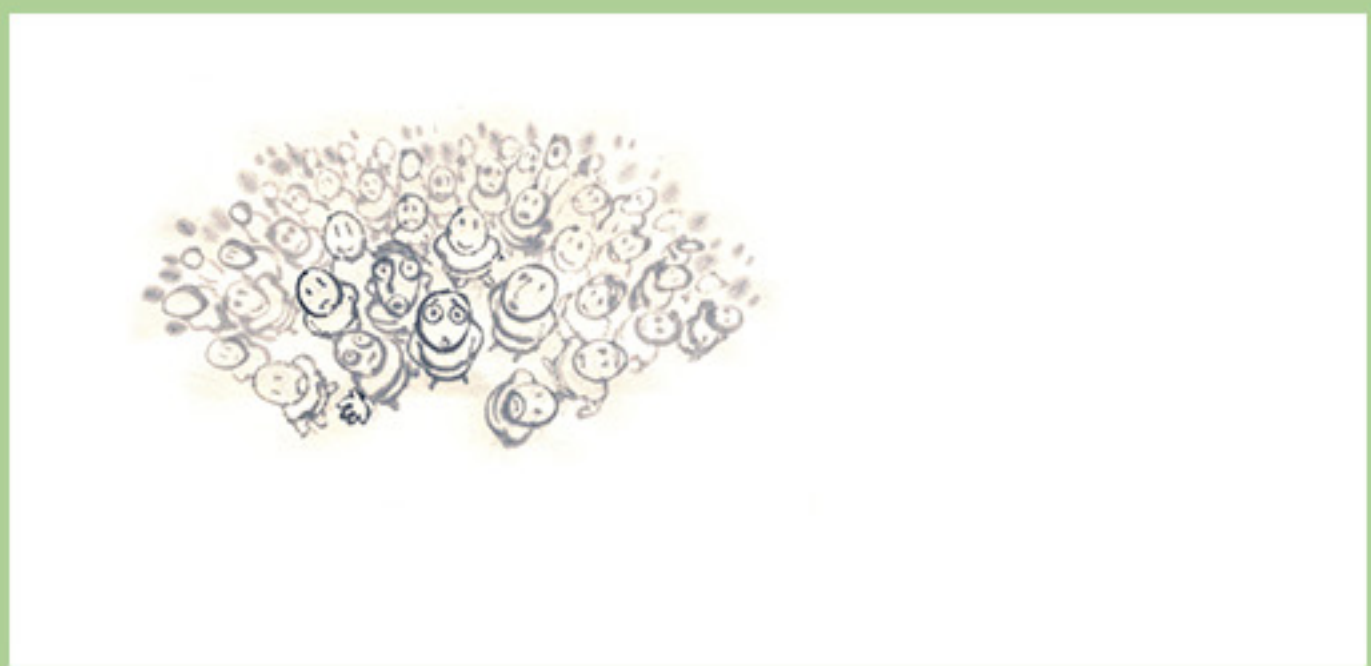
그리고 부활하신지 40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갈릴리호숫가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지중해 해안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포함된다. 이스라엘 북부 관구에 위치한 호수이다. 호수의 둘레가 약53km, 남북21km, 동서로13km, 면적은166km²이다. 요르단 강의 상류에 해당된다.